

안, 싱크탱크 '내일' 오픈... 독자세력화 급피치

(정책네트워크 내일)

'새정치' 구체화... 국가 구조 개혁 청사진 제시

소설가 조정래씨·이옥 교수 이사진 새로 합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9일 오후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을 개소하고 독자세력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성우빌딩 7층에 사무실을 둔 '내일'은 안 의원이 주장하는 '새정치'를 구체화하고 국가 구조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와 '새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을 연결시켜 안 의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장집 이사장, 장하성 소장, 최상용 후원회장,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금태섭 변호사, 김경록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개소식에서 "연구과제는 격차 해소"라며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건 우리나라 공동체의 재복원"이라고 말했다. 좋은 정책을

위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지향해 교수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네트워크를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사회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 등을 극복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이사장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금까지 소리가 매우 약하게 표출되던 사람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의 신당이 '노동 중심 진보정당'이 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내가 정당정치에서 노동의 참여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 중심의 노동 대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틀린 얘기"라고 일축했다.

소설가 조정래씨와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가 '내일'의 이사진에 합류함에 따라 이사진은 기존의 최 이사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성우빌딩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용 후원회장, 안 의원, 최장집 내일 이사장, 장하성 내일 소장. /연합뉴스

장, 장 소장, 안 의원을 포함해 5명이 됐다. 감사는 지난해 대선 때 안 의원을 지지했던 백용기 상명대 교수가 맡았다. 발기인으로는 안 의원의 대선 캠프 정책포럼 출신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민진 경희대 교수 등 52명이며 그중 34명은 교수 및 전문가 그룹이다. 나머지 18명은 안 의원의 대선 후보시절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캠프 출신 실장급 직원들이다.

'내일'은 19일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고 새 정책을 구현할 청사진을 밝힐 전망이다.

'내일'의 사무실 바로 위층 809호에는 (사)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오래전부터 입주해 있어 주목을 끌었다. 기념사업회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박 전 대통령 관련 자료 수집·보존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 만들어진 단체로 새누리당

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박희태 전 대표가 찾은 등 보수진영 인사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기도 하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 '안철수의 정책카페' 사무소를 열었다. 정책카페는 안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로 민생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가 라운지

문재인, 전북 모악산 등반 후 '시민과 만남'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이 지난 8일 전북 전주를 방문, 지지자들과 산행을 하고 한옥마을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 문 의원이 전북을 방문하기는 처음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곳)을 찾아가 전주 시민을 만났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때 전북 도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줘서 감사했다"며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전주 한옥마을 내에 있는 경기전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때 전북 도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줘서 감사했다"며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전주 한옥마을 내에 있는 경기전

김무성 의원 등 20여명 순천정원박람회 방문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의원을 비롯한 안현찬, 윤상일, 강성천 전 새누리당 의원 등 20여명이 지난 8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순천에 도착, 시내 식당에서 조충훈 순천시장 등과 오찬을 한 뒤 정원박람회장으로 이동해 한국정원, 꿈의 다리, 네덜란드 정원, 중국 정원 등 각종 정원 및 순천 호수정원 등을 관람했다. 이어 순천만을 구경한 이들은



이날 야간에 순천 동천 장대공원에서 열리는 순천 하늘빛축제 개막식에도 참석했다.

이들은 순천 일정을 마친 뒤 여수로 옮겨 1박하고 9일에는 여수 재래시장, 광양제철, 여수석유공사 비축기지 등을 차례로 들른 뒤 상경했다.

이들은 순천 일정을 마친 뒤 여수로 옮겨 1박하고 9일에는 여수 재래시장, 광양제철, 여수석유공사 비축기지 등을 차례로 들른 뒤 상경했다.

주영순 의원 2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 선임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이 2년 연속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주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에서 유일한 호남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을 비롯한 호남지역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야당과 관련 부처를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호소해 호남에 산을 지킨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호남에 산이 소외받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내 유일한 호남출신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누리당은 물론

가해 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호남에 산이 소외받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민주 '을 살리기 만민공동회'...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진보당·자영업자·편의점 CU 가맹점주 등 대거 참석

중소상인 살리기 등 8대 입법 요구안 즉각 수용 요구

민주당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화문 문화마당에서 진보정의당,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을(乙) 살리기 경제민주화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근 논란이 된 남양유업 대리점주와 편의점 CU 가맹점주 등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동안 국회 내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해 힘을 쏟아온 민주당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불공정한 '갑을(甲乙) 관계'로 겪는 피해를 직접 호소하고 '을'들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민주당은 '경제민주

화와 을 살리기 선언문'을 통해 "착취당하는 중소기업, 공정한 시민들, '을'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진보개혁적 정당과 정치인들이 하나로 뭉쳐 우리 사회의 모든 권력과 부를 독식하고 독점하는 갑들에 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을'들의 친구, 정당과 정치인은 입법과 현장조사, 불공정고발 등을 통해 을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설 것이며, 이번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살리기 제반 법안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겨냥, "우리의 중소기업·자영업자 살리기 8대 입법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고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



김한길(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화문 문화마당에서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 국민대회 전국 을들의 만민공동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키기 바란다"면서 "만일 이 핑계저 핑계로 말 잔치만 벌인다면 가진 자들과 재벌들만을 위한 '갑의 정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은 "1987년 6월 정치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면 2013년에는 경제민주화 요구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며 "약자들의 목소리를 한 군데로 모아 보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여야 격돌 예고

이용섭·임내현·김선동 질의

국회는 10일부터 내놓은 분야의를 열어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대정부 질문은 첫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 분야(11일), 경제분야(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13일) 순으로 실시된다.

분야별로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매일 질문자로 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대책을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 이용섭·임내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지난달 중순 원내사령탑을 교체한데다가 오는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01일

굿모닝 메디컬 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에 탄생합니다!

굿모닝 스포테인먼트 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